

문법화의 이론과 국어의 문법화*

이 지 양**

I. 머리말	V. 일방향성의 문제
II. 의미 약화	VI. 어휘화와 형태화
III. 기능, 범주의 변화	VII 요약 및 결론
IV. 재분석	

I. 머리말

최근 들어 문법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변형생성문법이 막강한 영역을 구축하는 동안 문법화는 주변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문법화가 생성문법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쉬르 이래 공시적 기술이 통시적 기술에 우선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통시론이 도외시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공시적 규칙이 언어학의 중심에 놓여져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작금의 활발한 국어 문법화에 관한 논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어 문법 현상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위한 새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교수 국어학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최근 문법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국어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고민한 결과라기보다는 외국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그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문법형태가 다른 어떤 언어보다 발달한 국어에서 문법화에 대한 천착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문법화의 연구가 우리 국어 문법의 중요한 한 부분을 밝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 문법의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문법화에 대한 연구는 그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으로나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유창돈(1964), 안병학(1967) 등에서 이루어진 문법화에 관한 논의는 문법화의 결과 나타난 문법 형태의 확인에서 시작되어 그 개별 문법 형태들의 기원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연구에서도 변화의 과정은 서술되고 있지만, 그 변화 과정 자체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이고 이론적인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개의 항목들이 가지는 개별적인 변화의 모습을 고찰하고 있다. 이런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그 후 오랫동안 문법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문법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국어학에도 영향을 끼쳐 문법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문법화”도 단순히 결과에 대한 용어인 *grammaticalization*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그 과정을 고려하여 새로이 *grammaticization*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¹⁾

실제로 문법화가 특성화되어 온 두 주요한 방식 중 첫째는 여러 독립된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었고, 둘째는 문법화가 설명을 위해 독립적인 이론을 요구하는 뚜렷한 역사적 과정을 가진다는 것인데, 전자는 앞선 시기의 문법화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연구에서는 문법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론을 찾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논의 방식에서도 특정한 형태들이 실사에서 왔으므로 문법화된 것이라는 전제 아래 각각의 형태들이 문법형태소로 된 과정들에 대해 개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는 문법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보다는 문법화된 형태들의 확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1) Hopper, P.J. & Traugott, E.C. *Grammaticalization*, 1993. pp xv-xvi

고 할 수 있다. ‘허사화’, ‘후치사화’ 등의 용어는 과정보다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자의 방식에 따른 연구태도를 잘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허사화’는 실사에서 비롯되어 허사가 만들어진 결과에 ‘후치사화’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후치사인 경우에 사용된 용어이다.

후자의 관점에 선 논의들이 문법화를 보는 방식은 어휘적인 요소가 문법적인 요소로 된 것 뿐만이 아니라 덜 문법적인 기능을 하던 것이 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는 문법화를 과정으로 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문법화를 일련의 통일된 체계를 가진 과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지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으로 된 것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휘적인 요소에서 문법적인 요소로 되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 형태나 형태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 문법화의 대상은 그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넓게는 통사적 현상이 아니던 것, 즉 화용론적인 현상이 통사적 현상으로 굳어지게 된 것까지를 문법화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²⁾, 그 과정에 너무 천착한 나머지, 어휘화까지를 문법화에 포함시키는 일도 일시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어휘화의 과정 가운데도 많은 부분이 문법화의 과정과 유사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문법화에 특유한 기제들이 존재하느냐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논자들이 문법화의 과정으로 드는 ‘의미의 약화’, ‘음운론적 축약’, ‘재분석’과 같은 현상들이 과연 문법화에 고유한, 문법화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으며, 문법화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들고 있는 ‘일방향성’ 등의 개념이 아무런 반증례 없이 지지될 수 있느냐도 또한 문제이다. 만일 이러한 증거들이 문법화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면, 문법화를 일련의 동일한 과정을 가지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문법화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 것들에 대한 관찰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논문은 문법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논의되어 왔던 ‘의미의 약화’ 기능의 변화, 범주의 변화, 음운론적 축약, 재분석’ 등의 과정이 국어 문법화 논의

2) 자세한 설명은 6장 참조

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 문법화의 공통되는 특성이라고 여겨져 왔던 일방향이 과연 지지될 수 있는 성질의 개념인지를 논의한 다음, 국어에서 문법화가 가지는 의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문법화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런 개념들은 어휘화와 형태화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어휘화와 형태화에 관한 논의들도 문법화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화와 어휘화, 형태화의 개념들을 다시 정립하는 일도 이 논문의 목적이다.

II. 의미 약화

의미의 약화는 문법화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든지에 관계없이 문법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어에서 문법화와 관련된 연구의 초기 단계(안병희(1967), 유창돈(1975)에서 문법화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명사, 동사 등의 단어 범주가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조사로 바뀌는 현상에 국한하여 제시되었는데, 여기서의 문법화는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의미의 약화 내지는 소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의미의 약화와, 기능 또는 범주의 변화는 오늘날에도 문법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생각되고 있다.

어휘적 단어가 어간에 교착되고, 문법적인 접사로 변화됨에 따라 어휘적 의미가 탈색되어 감은 당연한 일이다. 최형용(1997)은 문법화에 관한 새로운 이론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의 문법화 논의에서도 의미의 분화가 아주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논의대로 “어휘형태소>어휘형태소”까지를 문법화에 포함시킬 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은 의미의 축소 혹은 의미의 분화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나면 문법화는 일어난 것이라는 태도이다. 또한 안주호(1996)에서는 구조의 변화와 의미의 변화 가운데서 의미의 변화가 선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태영(1988)에서도 문법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실질형태소의 의미 변화라고 말한다.

문법화의 최초 단계가 어휘의미의 탈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의미

변화의 원인을 아무리 사회적인 데에 두더라도 언어학적인 조건 없이 의미의 약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미의 약화는 대개 자주 놓이는 문맥에서 특정한 의미로 제약된 채 이해되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자주 놓이는 문맥’은 바로 언어 자체의 구조적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의미의 약화는 언어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배경 없이는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면 반드시 문법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적 배경이 문법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의미의 약화’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문법화 설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의미론적 가치의 ‘상실’을 문법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해 왔지만, Bybee와 Pagliuca(1985:72~73)를 비롯한 최근의 논의들에서는 의미의 약화나 표백이 아니라 메타포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들의 논의에서 의미의 변화는 단지 의미의 약화가 아니다. 구체적인 어휘 항목이 좀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이 보강되고, 처음에는 그러한 용법이 은유적인 것으로 이해되다가, 추상적인 기능으로 계속 사용됨으로써 그 자체가 추상적 의미로 고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문법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Heine, Claudi, Hunnemeyer(1991)에서는 의미가 추상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다음의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사람>대상>활동>공간>시간>질
- 2) a.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광수를 읽었다.
b. 바늘귀, 산머리
- 3) 성경, 차(車)

그러나 이러한 추상화 과정은 아주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므로, 문법화에만 고유한 것일 수는 없다. 2)에서 ‘이광수’는 사람이 아니라 책이므로 ‘사람’에서 ‘대상’으로의 의미 추상화, ‘바늘귀, 산머리’에서의 ‘귀, 머리’는 ‘대상’에서 ‘공간’으로의 의미 추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추상화를 문법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예들은 문법의 층위보다는 오히려 어

휘의미의 층위에서 다루어져 온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다. 의미의 변화만으로도 이 예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으며, 이 단계만을 설명할 때 문법의 층위가 작용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의 추상화가 그 자체로 문법화를 담보해 주지 않는 것처럼 의미의 약화, 혹은 의미의 축소도 그것만으로 문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3)에서 ‘성경은 현대에 와서는 특정한 종교의 경전만을 의미하게 되는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어의 많은 단어들은 의미의 확대, 변화와 더불어 의미의 축소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에서의 의미 축소를 우리는 문법화의 논의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접사화도 “분포의 제약, 의미의 추상화” 등이 따른다는 점에서 문법화와 유사하기는 하다. 파생접사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 때도 의미의 약화가 바로 문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파생접사들은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성의 증가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파생접사들도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것을 문법적인 기능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형성 방식에 파생이 아닌 복합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어와 단어를 결합하는 방식인 복합도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게 되지만 이때 각각의 단어를 문법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파생접사도 새로운 단어 형성과정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파생접사가 문법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휘적인 요소가 파생접사로 되어도 이를 문법 형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자립적인 어휘적 요소가 의존적인 어휘적 요소인 파생접사로 된 것 뿐이다. 문법성의 증가라기보다는 의존성의 증가가 파생접사화의 성격에 더 들어맞는 설명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의미의 약화가 문법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가설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생어에서는 여기와 접사 양쪽에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 4) 노름, 그림, 고비, 길이, 달리기,
- 5) 결혼, 물불, 노루발, 넘어가다

4)에서와 같은 파생어나 5)의 복합어들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 가운데 여기 부분은 파생어나 복합어를 이루기 전에는 단일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어 형성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의 의미는 본래의 단일어가 가지던 어휘적 의미를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다. ‘노름’이 ‘놀다’의 의미를 다 가질 수는 없으므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넘어가다’의 ‘가다’가 단독으로 쓰일 때의 동사 ‘가다’와 동일한 의미영역을 가질 수 없음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으로 파생접사들 중 어휘에서 출발한 것들도 의미의 약화 과정을 겪게 된다.

- 6) a. 개살구, 개잡, 개나리
- b. 맞불, 맞섭, 맞장구
- c. 잠보, 피보, 울보
- d. 개구쟁이, 노름쟁이

6)의 ‘개, 맞, -보, -장아’ 등의 파생접사들은 단어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여기에서도 문법화에서와 유사한 의미의 약화 내지는 추상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따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이처럼 의미의 약화, 축소 혹은 변화는 문법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아주 다양한 부문에서 자주,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의미의 약화가 문법화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문법화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문법형태들도 “지속성의 원리”에 의해 어휘적 의미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접사화로 이루어진 파생접사들도 어휘의미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들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동 접미사나 사동접미사가 현재 상태에서 파생접사인지 굴절어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분포와 같은 공시적인 기준으로 가능하다. 즉 어휘적의미의 상실이 반드시 문법형태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파생접사로 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휘의미의 약화는 문법화만에 해당되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닌 셈이다.

더구나 다음의 예들에서와 같이 문법형태들끼리의 결합이 하나의 형태로 굳어

지는 형태화가 일어난 경우까지를 감안하면, 의미 약화는 문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어휘형태소가 포함되었을 경우의 문법화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7) -나(는가), -습니다 - 으므로

위의 예들은 선어말어미와 어미의 결합으로부터, 혹은 어미와 조사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어미들이다. 전통적인 문법화의 개념은 실사 또는 어휘 형태소를 기원으로 해서 문법 형태소가 만들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의 논의들은 그 기원이 어휘형태소에 국한되지 않고 문법형태소에 기원을 두고 있어도 이들에 기능의 변화가 생겨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예가 만들어지면 문법화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을 문법화에 포함시킨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7)에서와 같은 방식은 기원적으로 실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의미의 약화 자체를 논의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문법화된 것들로 분류하는 많은 예들이 의미약화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의미약화 자체가 문법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문법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의미의 약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의미약화로 문법화를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법화와 의미의 관계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는 요소가 기원적으로 동반되고, 거기에 의미약화가 일어나 문법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을 때만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때 의미약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흔히 ‘지속성의 원리’라고 알려진 것이다. 지속성의 원리는 “한 형식이 어휘적 기능으로부터 문법적 기능으로 문법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문법적으로 존속되는 한 그 기원적 어휘 의미들의 일부 흔적은 거기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고, 어휘들의 역사적 특성들이 문법적 분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Hopper, 1998)”는 것인데, 국어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예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8) 까지, 부터, 조차

9) *그는 지금 서울에서 있다

- 10) a. 꼼짝 말고 앉았어.
b. 꼼짝 말고 앉아 있어.

8)의 조사들은 기원적으로 명사 혹은 동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현대 국어에서도 원래의 의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은 국어 화자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9)가 비문인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다른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원적으로 ‘-에서’가 ‘있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동일한 의미의 반복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할 수도 있다. ‘-았’은 기원적으로 ‘-어 있’에서 온 것인데 현대국어에서는 시상과 관련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굳어진 형태이지만, 10)의 예를 보면 ‘-았’이 아직도 특정한 문맥에서는 ‘-어 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0)a에서의 ‘-았’은 10)b에서의 ‘-어 있’과 마찬가지로 지속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예들에서 보이는 문법화의 진전의 정도는 각각 다르다. 지속성의 원리와 관련시켜 보면 점차 원래의 어휘 형식이 가지던 어휘적 의미는 문법화가 진전될수록 줄어들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완전히 문법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의미의 지속성도 유지되지 않을 것이 예측되며 또한 더 이상 분석되는 것도 불가능한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각각의 경우에 그것이 더 진전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성의 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문법화에서의 변화가 급격하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사실이다. 한 시대의 언어는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포함된 공시태인 것이다. 사실 문법화에 대한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공시적인 언어 상태가 가질 수 있는 역동성에 관심을 가지게 해 주었다는 것일 수도 있다.

III. 기능, 범주의 변화

문법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양상은 문법적 기능과 문법범주의 변화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문법화의 결과 나타나게 된 문법범주들은 조사 혹

은 후치사,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접두사 및 접미사 등이다. 다음에서 이들에 해당되는 예들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 (11) a. -브터, -조차, -조처, -조초, -다려, -더브리, -뻬 등등
 b. -께, -에게, -에서 등등
 c. -썸, -만 등등

(11)a는 동사 어간과 어미, 명사와 조사, 명사와 접미사가 결합하여 후치사로 된 예들이며, (11)b는 선행하는 조사와 후행하는 명사 혹은 동사와 결합하고, (11)c는 명사가 단독으로 후치사로 된 예이다. 이들의 기원적인 구성에는 실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법화가 일어나면 원래 실사의 어휘적인 의미가 잔존하게 되는 지속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 (12) -습, -앗앗, -졌, -을거(을 것), -르타, -궤참 등등
 (13) -르식, -르지, -르는지, -니들, -니디, -냐, -누냐, -읍니다, -습니다

-읍니까, -으매, -으므로, -아도, -느라고, -을손가, -거지라, -거니와 등등

(12)는 문법화의 결과 선어말어미가 형성된 예들이다 ‘- 습’ 을 제외하면³⁾, 이 예들은 명사구 보문 구성이나 동사구 보문 구성을 대상으로 한다. 동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가 일어날 때는 선행 동사의 어미와 후행 동사의 어간이 참여하므로 선어말어미의 위치에 오게 되며, 명사구 보문 구성의 경우에도 문법화가 일어난 예들은 보문명사가 계사를 취하고 있으므로 선행하는 관형형어미와 같이 작용하여 마찬가지로 선어말어미의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 보문 구성이 문법화될 때는 대체로 이러한 요소들에 형태화⁴⁾가 일어나게 된다. (13)과 같이 어말어미화의 결과로

3) ‘-습-’은 기원적으로 동사어간 ‘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동사어간만이 단독으로 문법화를 경험하여 선어말어미 등의 단일 형태로 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습-’은 특이한 예이다.

4) 일단 형태화의 개념은 단순히 하나의 형태가 아닌 것이 하나의 형태로 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 둔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구성을 이루던 것들에 기본적으로 재분석이 일어나는 과정이 당연히

이어지는 문법화의 경우에도 선어말어미에서와 같은 형태화가 일어난다. 단, 조사,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들이 참여하는 문법화의 경우에 원래의 요소들은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통합되게 되면 그 문법적인 의미도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문법적인 요소들끼리의 결합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를 문법화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여겨지게 될 때 본래의 의미가 약화되는 양상은 어휘적 요소를 포함하는 문법화의 경우와 평행하다.

(14) a. 훗, 훗

b. -흐-, -드와, -쌌-, -받-, -뜨라

c. 살, 예, 단, 잔, 잔, 툄, 데랄, 달야, 일어, 드라, 거들떠, 나타, -곶-, -답

(15) a. 터흐, 길, 탓, 짓, 녀, 놈, 지경, 노릇, 따름, 리, 양, 즘, 체, 이, 줄

b. 주다, 보다, 버리다, 나다, 내다, 쌓다

(14)a,b는 각각 접두사화와 접미사화의 예들인데 이들은 모두 파생접사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생접사는 문법형태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이런 파생접사들이 만들어지는 변화 과정이 문법화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문법화의 영역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14)c는 고영진(1997)에서 접사화의 예로 제시된 것들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 접사로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이다. 접사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원래의 단어들과 너무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문법화는 정도성을 가지므로 문법화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이면 문법화가 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들의 직관으로는 그것이 독립된 하나의 형태나 기능을 가져야 문법화된 것으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예들은 (14)a,b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접사화의 한 과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

(15)a는 형식명사로 되었거나 형식명사로의 길로 들어선 예들이며, (15)b는 본

포함될 것이다. 자세한 것은 6장 참조

래 본동사에서 조동사로 된 것들인데, 이들도 (14)c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형태로 더 진전되지 않으면 문법화로 부르기에는 이른 감이 든다.

일반적으로 문법화를 경험하는 형식들은 명사, 동사라는 완전한 범주의 형태론적 표지나 통사적 특성을 잃는 경향들이 있으며, 이차적 범주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문법화가 가지는 범주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지만, 문법화의 과정이 “내용 단어> 문법적 단어> 접어> 굴절접사”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교착어인 국어에서 내용 단어가 문법적 단어로 변화되는 중간의 어느 한 과정만을 보고 그것이 완전히 문법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IV. 재분석

우리는 앞에서 문법화가 의미의 약화나 변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문법화는 아니며, 기능의 변화 자체는 문법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의미의 약화나 기능의 변화가 문법화를 결정지워 주지 못한다면, 문법화의 특징은 긴밀한 관계로 재분석되는 절차만이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문법화의 과정은 경계의 약화 내지는 소실, 고정성을 획득하는 과정 재범주화 등 재분석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의미나 기능, 범주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어떤 단어나 구가 단일한 문법형태로 재분석되고 아울러 문법적 기능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법화 이론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은 이런 종류의 재분석을 보여주는 여러 언어의 많은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범주에서 기능범주로 바뀌는 예로 붙어에서 부정부사로의 문법화를 경험하게 되는 ‘pas’, 기능범주에서 다시 접어로, 접어에서 접사로, 파생접사에서 굴절접사로- 이와 같이 점차 문법적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과 관련된 예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범주의 변화와 관련된 것보다 더 전형적인 재분석의 예는 층위를 가지는 통사 구조가 표면에 나타나는 요소들의 순서를 유지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융합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바 있듯이, 과거의 ‘았’이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의 자리를 차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던 이전 시대의 ‘어 있’이 음운론적 축약과 아울러 단어 경계의 소멸, 층위구조의 재분석을 경험하여 문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화와 재분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보다 덜 문법적인 기능을 하던 것이 보다 더 문법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는 문법화의 정의 자체가 재분석을 함축하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문법화는 더 낮은 정도의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부터 더 높은 정도의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그 구조로 재분석이 있을 때 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법화와 재분석 사이의 관련성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격의 재분석을 거친 결과가 언어에 따라 보다 더 문법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덜 문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6) a. 그는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별로 즐기지 않았다.
b. 너 그 남자 어땠든 / 별로예요

16)a에서는 ‘별로’는 글자 그대로 ‘특별히’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그 자체로는 부정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지만, 부정의 구문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지금은 16)b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쓰여서도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어의 ‘pas’와 그 궤를 같이 한다.⁵⁾ 그러나 불어의 ‘pas’가 문법적인 요소로 바뀐 반면 국어의 ‘별로’는 여전히 하나의 어휘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적어도 국어 부정 구문과 관련해서는 어휘범주에서 기능범주로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국어의 ‘별로’는 부정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 가지게 되어 ‘특별한 것은 없다’는 정도로 해석되어 의미의 확대를 가져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재분석이 일어나는 방향성과는 오히려 반대되고 있어서 재분석이 언제나 문법화를 위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문법화와 의존성의 문제이다. 국어에서 문법화를 경험한 결과로 나타난 형태들은 모두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⁶⁾ 그러나

5) 이런 유의 의미변화는 개론서 수준의 어휘미론 저서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국어의 문법형태가 모두 의존형태라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역으로 의존요소화가 문법화를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국어 문법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존요소화는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는 국어에서 문법적인 요소가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과의 우연적인 일치가 만들어낸 결과로 보인다. 문법화의 최종 결과가 의존요소가 될 가능성은 아주 높지만, 문법화의 대상이 되는 원래 형식이 반드시 자립요소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법화가 의존요소화를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문법화를 경험하기 이전의 본래 형식은 때로는 어휘형태소이기도 하고, 어휘형태와 문법형태의 통합체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의존요소들끼리의 결합이 되기도 한다⁷⁾ 문법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립, 의존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의존의 개념이“ 보다 긴밀해진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의존요소화가 문법화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17) 터, 늪, 지경, 노릇

17)의 예들은 임동훈(1991)에서 형식명사로 분류된 것들인데, ‘노릇’ 등은 본래적인 명사에서부터 점차 자립성을 상실하고 의존성을 띠게 된 예들이다. 자립형식이 의존성을 띠게 되는 이러한 예들에 대해 문법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방식의 설명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설명은 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러한 방식의 설명이 국어의 문법형태가 모두 의존형태소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존성을 띠다고 해서 문법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하려면 국어의 의존형태소가 모두 문법형태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명사나 보조동사는 모두 혼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의존적인 형식이지만 이들을 조사나 어미와 마찬가지로 문법형태소라고는 하지 않는다. 또한 파생접사의 경우는 의존형태소이지만 문법적인 기능보다는 어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가정은 성립되기 어렵다. 의존성이 강해질수록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문법형태소 혹은 문법형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최근의 문법화들이 취하고 있는 관점을 따르면 17)의 ‘노릇’ 등의 예들에서는 그 분포가 자립적인 모습을 잃어 가고 있으므로 문법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7) 이현희(1991) 참조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과 유사하게 파생접사의 기능을 향해 변화된다면 이는 문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사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자립 명사인 ‘노릇’이 의존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을 바로 문법화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존요소화와의 구별을 간과한 것이다. 의존요소화가 문법화를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V. 일방향성의 문제

문법화가 다른 기제에 의한 부수적인 결과로 생각되지 않고, 그 나름의 설명력을 가지는 특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질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문법화를 일관하는 특징으로는 일방향성 정도가 제시되고 있다. 문법화를 과정이라고 말할 때의 ‘과정’은 그 현상만을 지배하는 뚜렷한 원칙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기본적인 성격은 “문법화는 일방향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단위로 진전되어 나가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Heine, Claudi, Hunnemeyer 1991)”고 설명된다.⁸⁾

Givon(1979)에서는 이러한 문법화의 일방향성이 다음과 같은 단계의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18) 담화(Discourse) → 통사(Syntax) → 형태론(Morphology) → 형태음소론
(Morphophonemics) → 영(Zero)

제일 앞의 ‘담화’에서부터 마지막의 ‘영’까지의 단계는 더 문법적인 쪽으로 움직이며, 문법의 변화는 이러한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물론 언어에서 덜 문법적인 쪽으로의 문법변화보다는 더 문법적인 방향으로의 문법변화가 잘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방향성’이 하나의 동질적인 과정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8) Hopper & Traugott(1993)은 이러한 의미에서 문법화 가운데 어떤 양상들을 특유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들에 따르면, 문법화의 두 부문 즉 재분석과 유추는 별도의 필요에 따른 기제들로부터 일어나지만 일방향성은 문법화에 특유한 것이고 설명한다.

회의적이다. 최대한 양보를 해서 문법화가 재구조화 또는 재분석의 과정을 가진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단계의 재구조화가 동일한 성격이라는 점을 보장할 수는 없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방향성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동일한 설명의 과정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관찰적 충족성만을 가질 뿐이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백화점에서 가격을 할인할 때 물건을 싸게 산 것과 시장의 노점에서 흥정을 하여 물건을 싸게 산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화용론으로부터 제로까지의 과정을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은 그 과정이 일방향성을 가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양상을 보고 과정이 같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에 그 과정이 동일한 것이라면, 각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면밀히 고찰하고 분석을 한 다음, 그 동일성을 말해야 할 것이다. 각각이 다른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로 나타난 양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들이 동일한 과정에 놓인다고 하는 것은 진실일 수 없다.

Hopper & Traugott(1993) 를 비롯해서 일방향성을 문법화의 특유한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법화의 방향은 역전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일방향성은 재분석등 언어학적 장치들과 같이 적용 가능한 체계를 가지는 것이 아닌 경험적 가설인데, 그것은 한편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문법화의 어느 단계에서 과정이 꼭 정해진 방향으로 진전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없다. 더구나, 만약 반증례들이 나타난다면 일방향성은 문법화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향성은 어휘화 현상에 의해 바로 반박될 수 있다. 일방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휘화가 문법화와는 다른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사한 과정을 거쳐 문법적인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휘적인 성질이 증가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19) 달걀, 훗불

20) 들 모였구나

21) a. 너는 벌써 집에 갔다왔잖니?

b. 귀찮다, 하찮다, 괜찮다, 점찮다

c. 점잔

위의 예들은 문법형태를 포함하는 형태, 통사론적 구성에서 문법적인 성질이 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어휘적인 성질이 증가되어 새로운 어휘로 나타나게 된 경우들이다. 19)의 예들은 기원적으로 문법형태인 속격조사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이들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된 것들인데, 이들은 모두 어휘화가 일어난 예들로 일방향성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례가 될 수 있다. 20)은 현대국어의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인데 이러한 경우의 ‘들’은 파생접사로부터 ‘모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21)은 동일한 구성인 ‘-지 않-’으로부터의 재분석이 21)의 a,b,c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21)a에서의 ‘-잖-’은 현대국어에서는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분석될 수밖에 없는데, 통사론적 구성인 ‘-지 않-’이 하나의 문법형태로 변화된 전형적인 문법화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1)b의 ‘-잖-’은 선어말어미가 아니며 그것이 포함된 단어들이 비록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형태상으로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하나의 단어 속에 녹아버린 것이다. 21)c에 오면 사정은 더욱 심각해진다. ‘점잔’은 ‘점잔다’를 ‘점잔하다’로 생각한 데서 비롯된 오분석의 예일 것인데 본래의 구성이나 의미와 무관한 새로운 어휘를 탄생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달걀’을 비롯해 기원적으로 속격의 사이시옷이나 ‘의’가 포함되었던 구성에서 만들어진 복합어나 ‘들’과 같이 접사로부터 어휘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예, 동일한 통사적 구성이 문법화와 함께 어휘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등 어휘화의 예들 가운데 상당한 것들은 문법화가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형태화의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휘화와 문법화는 동일한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음운의 축약, 의미의 변화, 형태 구조의 변화 등이 어휘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문법화에 특이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문법적인 성질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법화는 더 문법적으로 되었다는 사실 말고는 특이한 것이 없다. 따라서 문법화의 과정으로 제시되는 증거들 중에 상당 부분은 문법화에 특이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문법화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문법적인 성질이 증가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게 되는 셈이다.9)

일방향성의 과정을 논할 때 처음에 보이는 “담화> 통사”는 어휘화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사화’라고 부르는데, 통사화는 화용론적인 단어 순서를 통사구조와 일치되도록 체계를 고정시키는 것, 혹은 어휘적 표현 대신에 문법적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 등을 포괄한다. 최형용(1997)은 이와 같은 통사화의 과정을 국어에 적용하여 “통사적 현상이 아니던 것이 통사적 현상으로 변한 것”을 문법화의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통사화의 개념이 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예를 들면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를 어휘적인 표현 대신에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법범주화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국어의 모든 문법적인 표현들이 문법화된 것일 수 있다는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일 뿐이다. 대개의 문법범주들은 어느 정도는 어휘적인 표현으로도 가능한 것들이므로 국어는 기원적으로 문법형태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언어유형론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특이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크게 보아 통사화가 다른 종류의 문법화와 공통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보다 느슨한 구성이 보다 긴밀해졌다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이는 바로 재분석이다. 결국 통사화는 통사론적 재분석의 하나인데, 이를 구태여 형태론적 재분석과 동일한 차원에서 묶어낼 필요는 없다. 다양한 재분석 현상 중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분석 자체는 문법화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는 되지 못하므로 통사화를 문법화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방향성의 가설을 포장하기 위한 인위적인 묶어내기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일방향성은 비유하자면 물의 흐름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게 마련인 것처럼, 문법의 변화는 보다 더 문법적인 쪽으로의 변화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자주 쓰이는 표현이 길거나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화용적(어휘적), 자연히 단순하고 명백한 표현(통사적, 문법적)으로의 변화를 향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 물을 위로 끌어올리듯이, 필요하다면 일방향성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과정도 배제될 수는 없으며, 우리가 바로

9) 이와 같이 일방향성에 역행되는 현상은 의외로 다른 언어들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굴절접사에서 파생접사 혹은 단어로, 접어에서 단어로, 파생접사에서 단어로, 기능범주에서 어휘범주로 되는 예들은 여러 언어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한 예를 들면, 영어의 명사 ‘inn’은 전치사 ‘in’으로부터 형성된 명사이다

전에 보았듯이 이는 언어현실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VI. 어휘화와 형태화

우리는 앞에서 문법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장치들이었던 의미의 변화, 기능, 범주의 변화, 재분석, 일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 그 어느 경우에도 문법화를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는 문법화만을 위한 특유의 과정이 존재하는 않는다는 결과를 말해주는 것인데, 문법화에서 나타나는 과정들은 어휘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단일한 단어의 의미변화, 음운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여기서 다시 문법화 연구의 두 국면을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문법형식에 대한 역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어휘항목이나 어휘항목을 포함한 구성이 특정한 문맥에서 점점 문법적 기능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 그 결과의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문법형식의 기원과 그들에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변화의 통로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때의 문법화는 보통 한 어휘항목이 특정한 용법으로 사용된 결과 그것이 문법적 항목이 되는 것, 한 문법적 항목이 더욱 문법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관점은 공시적 관점에서 범주와 의미의 계속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 한 형식의 분포가 제약되거나 고정되어가는 과정의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이때는 문법화를 기본적으로 통사적, 화용론적 현상으로 보고 언어 사용의 유동적인 변화 기제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 이 둘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전자는 역사적인 것이고 후자는 구 구성의 고정화 경향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어에서 전자의 태도는 어떤 구성이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문법형태와는 관계없이 구성요소들 사이가 긴밀해지는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인국어의 경우에는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국어의 경우는 ‘이따가, 되게, 당최’ 등의 경우처럼 어휘화되는 예들도 후자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문법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문법화의 국면 중 그 과정에 초

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특정한 어휘나 어휘적 구성이 문법적인 요소로 될 것을 전제로, 긴밀해지는 과정 자체가 문법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가정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문법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국어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태도는 국어의 정확한 모습을 연구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문법화는 그것만의 독자적인 과정은 없고, 단지 경향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문법화가 일어나는 여러 단계가 동일한 과정이라는 증거도 없다. 많은 문법화들과 자주 연관을 맺는 것은 재분석이지만, 재분석도 그것이 반드시 문법적인 성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필자의 현재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문법화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그야말로 더 문법적인 것으로의 변화이다. 결과적으로 문법화는 어휘적인 요소가 문법적인 요소로 변화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 확실해진다. 어휘화까지도 문법화에 포함시키는 일은 역시 무리로 보인다. 어휘화는 그야말로 재분석의 결과 중의 하나이며 그 결과 새로운 어휘가 나타난 것이다. 문법화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문법적인 요소가 만들어진 경우에만 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문법화의 과정에 대한 분석도(비록 예측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문법화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그 결과가 문법적인 요소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 된다. 문법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스스로를 고유하게 만드는 특유의 이론보다는 재분석이나 재구조화, 융합과 같은 다양한 다른 이론에 의하여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원초적인 데로 회귀하게 된다. 문법적인 것이 무엇이며, 더 문법적이고, 덜 문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어떤 구성의 결합이 긴밀해진 것이 문법화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재분석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문법화일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재분석을 문법화로 혼동하는 것일 수 있다. 재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문법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비록 문법적인 요소로의 이행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재분석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만이다.

사실 문법화의 개념은 이미 진전되어 우리의 언어 현실에 나타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할 뿐이지 새로운 재료가 어떻게 문법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법화는 결과물을 가지고 역추적한 것이다. 그렇지만 앞날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만으로는 문법화의 존재를 부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문법화의 경향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법화를 과정으로 보는 이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것을 결과로 보지 않고 과정에 초점을 두는 한에는 예측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법화를 결과로 볼 때는 예측 가능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법화의 이론은 무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문법화 현상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그와 관련된 현상들은 설명되어야 한다. 문법은 문법화가 재분석이나, 그 밖의 다른 현상들과 다른 독자적인 과정이 있다고 하는 설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구태여 독자적인 과정을 앞에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문법 요소를 만들어내게 되었을 때 문법화되었다고 하면 될 것이고, 문법화에 관여하는 여러 과정들을 인정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법화는 왜 필요한가? 문법요소들이 가지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기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문법화의 초기 단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문법요소가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설명은 그 문법요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법화가 이루어진 문법요소를 설명하는 데에 문법화에 관여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통일성을 얻으려는 노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문법화는 여러 다른 과정을 통해 모여든 하나의 바다와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법화는 더 이상 거론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떤 요소들은 다른 부류들과는 달리 그들끼리의 유사한 과정을 거쳐 왔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법화된 문법요소, 저런 과정을 거쳐 문법화된 문법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문법화된 요소들을 구별하는 일은 필요하다. 이것 역시 해당되는 문법요소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모든 문법화가 동일한 하나의 과정을 거친다는 태도를 버리기만

하면 문법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공시적인 언어 상태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정지해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사적 변화는 그것이 완성된 뒤에야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현재의 언어도 변화의 중간에 있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법화를 결과에 대한 용어로 한정하게 되면 혹시 공시적인 언어 상태를 논의할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의 문법화 연구들은 막연한 상태에 놓여 있던 문법화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지만, 찾아내기 어려운 고유한 과정을 찾아내려는 방식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문법화의 초점을 흐려지게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문법화 현상은 그 자체로 엄존하는 것이겠지만 국어 연구를 위한 보다 명증한 방법은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정에 초점을 둔 용어로는 형태화, 형태구조화, 통사화¹⁰⁾등을, 결과에 초점을 둔 용어로는 문법화(문법형태화)¹¹⁾, 접사화 등을 사용함으로써 문제는 선명해질 수 있다.

어휘화는 새로운 어휘가 나타났을 때(어휘가 새로운 의미를 더 가지게 되었을 때를 포함하여) 사용되며, 형태화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아직 형태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형태구조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드러난 변화가 존재할 때 이들 용어가 사용된다. 그런데 문법화에 대해서만 과정으로 정의함으로써 ‘문법화’가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게 되었다. 심지어 “어휘형태소>어휘형태소”의 경우까지를 분포의 축소나 의미의 분화만으로(최형용,1997) 문법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거의 모든 문법 변화를 문법화로 처리하게 됨으로 오히려 “문법화”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우려도 있다.

10) 통사화가 다른 종류의 문법화와 동일한 연장선 속에서 파악될 수 있으나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이지만, 순진하게 의미나 분포의 축소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문법화에 포함된다면 통사화라는 용어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문법화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통사화 현상은 언어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통사화 관련 논의에서는 문법화보다는 통사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11) 그 하위 범주로 조사화, 어미화, 선어말어미화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문법화와 어휘화는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연속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동일한 면이 있으며, 문법화의 결과는 접사나 어미와 같은 기능요소이고, 어휘화의 결과는 아직 동사나 부사와 같은 개념요소라는 점에서만 다른 측면도 있다.

고영진(1997)은 문법화의 최종단계가 어휘화라는 이론을 따라서 현대국어의 ‘뵤다’가 문법화의 뒤를 이어 어휘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뵤다’의 ‘-옵-’은 ‘-숯-’이 문법화하여 성립한 ‘-습-’의 후대형으로 ‘뵤다’에서는 이 자체가 높임의 뜻을 가진 서술어로 되면서 굴절어미의 성격을 잃어 버리고 있으며, 문법 요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법적 자격을 잃어 버리면서 어간인 ‘보-’에 녹아 붙어 어휘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문법화에 이은 어휘화는 우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조사나 어미와 같은 굴절접사가 다른 어간들과 결합되어 원래의 기능을 잃어 버리고 어휘화된 ‘이따가, 금세’ 등의 예를 든 바 있다. 문법화가 어휘화의 선행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어기와 접사가 결합된 채로 어휘화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문법화의 최종 단계가 어휘화라는 점은 Hopper & Traugott(1993)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주의를 요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휘화는 반드시 문법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문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그 문법적인 요소가 반드시 어휘로부터 비롯되지 않을 수 있다.

‘뵤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뵤다’에서 ‘-옵-’은 당연히 ‘숯-’의 문법화의 결과이지만 ‘-옵-’이 단독으로 어휘화의 과정을 겪을 수는 없고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는 다른 어간인 ‘보-’와 결합한 전체가 어휘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옵-’이 문법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법형태라는 사실을 잠시 접어두면, ‘뵤다’로의 어휘화는 결국 문법화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게’와 ‘-에’가 통합되어 어휘화가 일어난 ‘되게, 금세’ 등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문법화는 어휘화를 위한 전제일 필요는 없으며, 국어에서 문법화가 전제되지 않는 다른 “어간+어미”의 구성에서도 얼마든지 어휘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즉, 문법화의 최종단계가 어휘화라든가 하는 식으로 문법화와 어휘화를 직접 연결시키는 방식은 적어도 국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문법화와 어휘화를 관련시키려는 논의들은 다음의 두 가지 배경을 가

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외국 이론의 영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문법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어휘적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화된 형태가 그 기능마저 상실하여 더 이상 독자적인 자격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법형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극소수만이 존재하는 굴절어인 인구어들과, 본래부터 문법형태가 존재하는 교착어인 국어와는 사정이 다르다. 인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화에서의 개념은 모든 문법형태의 기원을 어휘적 요소의 문법화로 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정한 어휘에 기원을 두고 있는 문법형태가 다시 다른 어간과 통합되어 어휘화가 이루어질 때, 그 일련의 과정은 “어휘>문법형태>새로운 어휘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이미 문법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어에서 그 첫번째 단계(문법화: 어휘>문법형태)는 마지막 단계(어휘화: 문법형태>새로운 어휘의 일부)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닌 것이다.

문법화가 직접적으로 어휘화로 이어진다는 가설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해도, 문법화와 어휘화는 그 과정에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어휘화는 한때는 분석이 가능했던 둘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더 이상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형태로밖에 볼 수 없게 된 경우이며, 문법화도 원래의 구성과 관련은 유지되지만 원래의 구성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 예들에 적용된다. 그 과정에서 형태소 경계나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둔 구성에서 경계가 약화 혹은 탈락되는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문법화나 어휘화가 완성된 단계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형태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복합어와 파생어를 포함하는 합성어 구성, 또는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어휘나 문법형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형태화라고 부를 수 있다.

형태화의 개념을 도입할 때 우리는 다른 유형의 문법 변화를 설명하기에도 편하다. 국어에서 “조사+조사”나 “어미+조사” 구성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될 때도 우리는 관례적으로 문법화라고 설명한다. 의미약화나 음운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문법화라고 했던 것은 문법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재분석의 과정이 이런 구성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재분석이 문법화를 담보해 줄 수는 없으므로, 이들을 문법화라고 부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남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 결합이 재분석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형태로 된 것들이므로 이들은 형태화로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어휘화는 바로 형태화로 이어진다. 어휘화는 한때는 분석이 가능했던 둘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더 이상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어원적으로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시적으로는 하나의 형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래의 구성은 하나 이상의 요소가 포함된 구성체이며, 그 결과는 단일한 어휘형태로 된 것이므로 이는 바로 재분석의 과정을 거치는 형태화이다. 다음에서 어휘화의 영역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22) a. 어간과 어간 구성 합성어의 어휘화

예) 입때, 암탕, 험쌀

b. 어간과 파생접사 구성 파생어의 어휘화

예) 그믐, 갈치, 자주

c. 어간과 굴절접사 구성의 어휘화

예) 이따가, 금세(금시에), 되게

d. 오분석에 의한 어휘화

예) 점잔

22)a,b는 각각 파생어나 복합어의 예이지만 어휘화는 파생어나 복합어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22)c에 보이는 부사 ‘이따가’의 어원은 어간과 굴절어미가 결합된 “있다가”이지만 이를 단순히 동사 ‘있’의 굴절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파생접사가 없이, 여기끼리의 결합이 아니면서도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간+어미]의 구성은 대부분 문법화로의 과정에서 잘 나타나는 구성이지만, ‘이따가’는 하나의 어휘를 이루게 되므로 문법화라고 할 수도 없다. 위의 구성은 둘 이상의 구성이 재분석의 과정을 거쳐 단일한 형태로 되었다는 점에서 형태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때의 형태화 과정에는 당연히 어휘화가 수반된다. 22)d는 재분석의 일종인 오분석에 의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로 더 이상 구성요소로의 분석이 무의미해지므로 형태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른 통시적 현상과 관계가 있는 문법현상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정

한 단어나 형태 가운데는 통시적 변화의 과정에 놓여져 있는 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예들의 정확한 모습은 공시적인 분류나 분석으로만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변화하는 모습까지가 해당 예들의 정확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시적인 상태나 역사적인 변모의 어느 한 쪽만을 서술하더라도 해당 예들에 관한 서술이나 설명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둘 모두를 고려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벽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태화도 예외는 아니다. 둘 이상의 구성이 순간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되는 일은 문법변화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시적인 문법변화는 단순히 단어나 문법형태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통사구조나 음운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통사구조나 음운구조는 바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형태구조화’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는 중세 국어의 ‘-어/아 잇-’이 ‘-엇/앗-’으로 되었을 때 바로 기능의 변화까지 일어나지는 않으며 초기에는 본래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서서히 고정화의 단계를 겪게 된다. 형태구조화를 거쳐 다시 형태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형태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점은 많다. 형태화를 전제함으로써 우리는 음운변화와 아울러 형태구조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도 통시적인 형태의 진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화용론적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에 기대지 않고도 통시적인 형태변화를 문법 구성 자체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통시적 형태 변화를 연구할 때 의미 측면에서의 접근이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순수하게 형태의 측면으로부터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형태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변화의 과정으로 형태화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휘화와 문법화를 상정할 때 어휘화, 문법화의 개념은 보다 분명하게 되어 이들 연구에서 종종 있어 왔던 혼란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의 분명한 설정은 대상의 본질을 옳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는 점에서 형태화의 개념 설정은 의미가 있다. 또한 통시적 형태 변화의 상당 부분은 경계가 약화, 소멸이 병행되는 형태화에서 비롯됨을 밝힐 수도 있게 됨은 물론이다.

VII.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언어의 공시적인 상태는 변화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완성된 상태를 가정한 채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시기의 공시태도 거시적으로 보면 변화의 과정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정제된 상태는 아니며, 범주의 불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중심이 되는 범주는 확연히 존재하지만 그 외곽에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언어의 공시적인 상태가 칼로 무를 자르듯이 깨끗하게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외곽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공시론이 통시론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쁠 것은 없다. 몇 안 되는 예외를 위해 그야말로 무한할지도 모르는 새 규칙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그야말로 비극이다. 공시적인 언어 상태를 위해 일반적인 규칙은 존재할 것이며, 그 바깥쪽에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언어의 진실에 가까우리라 생각한다.

공시적인 언어 상태의 역동성과 관련되는 개념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어휘화, 문법화, 형태화이다. 우리는 최근에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한 문법화를 고찰하는 데서 출발하여 어휘화와 형태화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룬 셈이다.

문법화는 본래 통시적인 문법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문법화의 공시적인 기여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법화의 특성으로 여겨졌던 의미의 변화, 기능, 범주의 변화, 재분석, 일방향성 등은 그 어느 것도 문법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이 글의 앞부분은 의미의 변화, 기능, 범주의 변화 등이 문법화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문법화의 고유한 특성이 되지도 않음을 보이는 데에 할애되었다.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 문법화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일방향성도 그것이 문법화의 특성으로 여겨질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는 사실도 밝힐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문법화 현상 자체가 의미 없는 현상이 되거나, 의의가 축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국어의 많은 문법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데 그것이 어느 구성에서 비롯된 것이냐의 문제는 현재 그 요소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법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문법적 요소가 적은 외래 이론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삼가

야 한다. 문법적 요소가 적은 외국의 이론들이 취하는 접근 방식은 우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휘화는 그 과정에서 문법화와 많은 동질성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변화 과정이 재분석의 절차를 포함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어휘화가 문법화가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어휘화는 그 결과가 단일한 어휘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문법화와는 구분된다. 우리는 이 두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형태론적 과정이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형태화의 적극적인 활용이 도움이 되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형태화는 문법화가 혹시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화용론적 혹은 심리적 접근을 차단하고 문법화를 문법 자체의 논리로 설명하기 위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기대이다.

문법화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역문법화, 비문법화’ 등 문법화와 관련된 새롭고도 상세한 고찰을 위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후고로 미룬다.¹²⁾

참고문헌

- 고영진,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서울: 국학자료원, 1997.
 안병희, 「문법사」 『한국어발달사(중)』, 한국문화대개,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안주호, 「명사 파생의 문법화 연구」, 『어학연구』 32-1, 1996.
 유창돈, 『이조국어사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1964.
 이태영,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88.
 이현희, 「국어문법사 기술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국어사 논의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91.
 임동훈,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1991.
 최형용,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 148, 1997.

12) 이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세밀한 교정을 보여주신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나쁜 문장 습관들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장 수정 제안에서는 애정이 담긴 조언을 느낄 수 있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 Bybee, J. & W. Pagliuca, Cross linguistic comparison and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meaning, in *Fisiak*. 1985. pp. 59-83.
- Givón, T., Discourse and syntax, *Syntax and Semantics* 12.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 Heine, B. U., U. Claudi & F. Hünnemeyer, From cognition to grammar- Evidence from African languages, in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ed. by Elizabeth Traugott and Bernd Heine, 1991, pp. 149-187.
- Hopper, P. J., On some principle of grammaticization, in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ed. by Elizabeth Traugott and Bernd Heine, 1991, pp. 17-35.
- Hopper, P. J. & E. C.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Janda, R. Beyond “pathway” and “unidirectionality”: on the discontinuity of language transmission and counterability of grammaticalization. *Language Sciences* 23: 265-340
- Ramat, A. G. & P. J. Hopper, *The Limits of Grammaticaliz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8.
- Traugott, E. C. & B. Heine,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1.

● 투고일: 2003. 7. 18

● 심사완료일: 2003. 8. 20

● 주제어(key word):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일방향성(morphization),
형태화(lexicalization), 재분석(reanalysis)